



# 정교회주보

제2544호  
2025년 9월 28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 루가 제1주일

성 하리톤 고백자, 바룩 예언자  
일리오도로스와 피시디아의  
30인 순교자  
(제7조 • 조과 복음 5)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7조 찬양송 ..... 82
- 순교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 사도경 : 고린토 후 6,1~10 (봉)257
- 복음경 : 루가 5,1~11 ..... 12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정교회 신앙에서 회개는 거룩한 덕을 쌓는 데에 필수적이다"

(성 유스티노스 포포비치 사제)

## 사진 설명

## 시만드로

시만드로는 수도원에서 사용하며, 교회 전통과 신앙의 깊은 상징을 담고 있다. 유래 중에는 노아가 대홍수가 나기 전, 동물들을 모으기 위해 나무를 두드린 것에서 찾기도 한다. 교회에 종이 도입되기 전부터 널리 쓰였으며, 지금은 주로 수도원에서 다양한 영적 임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시만드로는 세 종류로 나뉘는데 1) 고정형(오른쪽 위)은 길이 3m 정도의 두꺼운 나무판을 나무망치로 두드려 소리를 내며, 복음 선포를 상징한다. 2) 금속 시만드로(오른쪽 아래)는 철판으로 만들며, 최후의 심판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상징한다. 3) 휴대용(왼쪽)은 나무로 길고 가늘게 만들어 수도자가 손에 들고 수도원을 돌며 두드리는데, 구약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전례 시작을 알린다.

시만드로의 소리는 영적인 삶에 집중하도록 상기시키며, 침묵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또한 세속의 소음과 구별되는 거룩한 부름, 하느님과 인간의 영적 접촉을 의미하기도 한다.

# 관대함은 미덕일까요, 성격의 단점일까요?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 대주교



**관**대함은 미덕일까요, 아니면 많은 것을 너그럽게 허용하는 험령한 특성이므로 단점이 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미덕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대함을 베푸는 동기와 그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이익을 기대하며 그를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베푸는 것이라면, 그 관대함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의 관대함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상대방의 사정을 참작해주고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면, 그것은 미덕이 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해를 끼쳤는데도 우리가 앙심을 품지 않고 관대함을 베푼다면, 그것은 큰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관대함이 낳을 결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리를 순진한 사람으로 여겨 더욱 대담하고 뻔뻔해진다면, 우리의 관대하고 너그러운 행동은 비록 선한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미덕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너그름이 다른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만든다면, 그 관용은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불행히도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탕자의 비유 속 큰아들처럼 마음이 굳고 엄격하여,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엄벌을 받을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보기와 기준은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에게 관대하셨지만, 완고하고 경직된 마음을 보실 때는 엄격하셨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하신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구절(루가 11,42-52)을 떠올려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과 이해를 보이고, 지나친 엄격함은 내려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저울질하는 대로 우리도 저울질 당할 것”(마태오 7,2)임을 잊지 맙시다.

관대함은 이렇게, 분별력 있게 잘 판단하여 베풀어야겠습니다.

# 시련의 때를 위한 충고

성 에프렘 수도사제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어려움과 시련, 유혹 등을 만나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힘들게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겪는 질병, 사고, 실패 등... 그리고 이런 경우 당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며, 당신의 신앙마저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 같고, 특별히 그런 시련이 금방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당신은 이런 논리적인 판단을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당신을 패배시키길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적인 악마인데, 악마는 당신을 자신의 그물에 걸리게 해서 자신의 하수인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십시오. 그분께 힘과 인내를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며, 온 세상을 향한 그분의 섭리와 특히 인간을 향한 그분의 섭리는 이미 확실하게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알이 다 세어 두셨다.”(마태오 10,30)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하느님께 영감을 받은 바울로 사도는, “여러분이 겪은 시련은 모두 인간이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1고린토 10,13)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참으로 많은 시련이 당신에게 닥쳐온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곧 당신에게 줄 왕관을 준비하고 계심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슬픔을 견딜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면, 당신은, “예, 견딜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 하지만 네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한다면 너에게서 그것을 걸어가겠다. 나는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 성 에프렘 아토스 성산 카투나키아 스키티의 수도자(1912-1998) : 2020년에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청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됨. 축일은 2월 27일

## 주간 예배 안내

\* 10월 3일(금)

###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안내

10월 3일(금),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아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조과는 9시 30분에, 성찬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소속 성당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면 식사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알림

###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소식

그리스를 방문 중이던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지난 19일(금) 아테네 주재 한국 대사관을 찾아 임주성 주그리스 한국 대사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영적·실무적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대주교는 지난 21일(주일) ‘동아시아 정교회 선교를 위한 총대주교청 재단’이 주최한 강연에 발표자로 초청되어 “21세기가 정교회의 세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날 강연에는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다수 참석했으며, 청중들의 관심과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 ■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봉사활동

서울 성당 장년회와 신데즈모스 회원 18명은 지난 18-19일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해 수도원의 가을맞이 대청소와 24인 수호성인 축일 준비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당 제초, 넝쿨 제거, 소대주교님 묘소 및 십자가상 청소, 분수대 정리, 건물 내부 일부 페인트칠과 청소·수리 등 다양한 작업을 맡았습니다.

또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며 뜻깊은 영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정성껏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성의 샘터

## 기도할 때는...

기도에 대해 모세 사부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다.

“그대는 하느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대가 죄의 상태에 있음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대의 죄에 온 신경을 기울인다면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켜볼 겨를이 없을 것이다.”